

# 古代 韓·日 출토 유기질제 鑣轡에 대한 연구

장 윤 정\*

## 〈목 차〉

- I. 머리말
- II. 鑣轡의 引手 및 銜의 분류
- III. 조합의 변천과 지역성
- IV. 鑣轡로 본 지역간 교류관계
- V. 맺음말

## 국문요약

삼국시대 유기질제 鑣轡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立聞用金具 외에 銜과 引手 등 다른 부품의 형태 및 조합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일본에 걸친 馬具 기술의 전과과정과 지역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古墳時代 초기단계에는 금속제 引手が 동반되지 않고 振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삼한시대 전통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近畿地域은 출토 수가 적고 岡山縣, 長野縣, 群馬縣, 宮崎縣 등의 지역은 분포하는 고분 수에 비해 출토예가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 鑣轡는 출토된 지역의 사회적·정치적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출토된 墳墓의 被葬者 성격 혹은 직업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주제어 : 馬具, 유기질제 鑣轡, 地域性, 三國時代, 古墳時代

\* (재)한국문화연구원 지표조사과장

## I. 머리말

일본에 마구가 들어간 것은 4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되고 있다. 福岡縣 池の上 6호분, 兵庫縣 行者塚古墳에서 출토된 재갈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초기의 재갈은 모두 금속제 경판을 가지지 않고 녹각 등 유기 질제 棒狀의 경판을 銜 양쪽 외환에 장착한 『鑣轡』라고 불리는 형식이다. 표비는 5세기에 북부 구주를 비롯한 近畿·瀬戶內 및 중부 高地 등에 높은 밀집도를 가지고 분포하여 일본 마구의 초현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표비는 출토 예가 적고 제작도 비교적 간단해서 재갈의 外形과 경판의 장식 내용·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1974년 伊藤秋男은 한국 표비를 검토하고 6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伊藤秋男 1974) ① 鏡板이 없는 것. ② 銜 外環이 직경 5cm전후의 큰 圓環으로 이루어진 것. 즉, 圓環은 銜과 일체가 되고 銜의 일부를 이루며 그 圓環에 引手가 직접 연결된 것. ③ 銜 양쪽 외환에 각각 1개의 U자형 혹은 雙脚形의 金具가 圓環의 일부를 걸친 상태로 녹슬어 있는 것.(이 금구는 필자가 언급한 바 있는 立聞用金具에 해당된다. 張允禎 2003, 2006) ④ 금구는 양쪽 脚部가 매우 長大하고 마치 안교에 장착되는 교구와 비슷한 것.(이것은 필자의 입문용금구 형식 중 棒狀鉸具式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⑤ 금구 兩脚 끝이 거의 직각으로 외측 또는 내측으로 구부러져 있는 것. ⑥ 금구 脚部에 폭 약 1cm~2cm정도의 木質 내지는 骨質 殘痕이 확인되거나 兩脚을 가로지르는 상태로 木質痕 혹은 骨質痕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伊藤은 立聞用金具에 주목하였고 유기 질제 部材를 銜 외환에 꽂아 그 금구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伊藤이 표비에 대해 정의를 내린 후 지금까지 표비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1985년 坂本美夫는 伊藤이 설정한 표비에 대해 銜 양쪽 외환에 부착되는 경판 형태에 주목하여 取付式鏡板付轡, 固定式環狀鏡板付轡, f자형 棒狀鏡板付轡로 분류하였다.(坂本美夫 1985) 取付式鏡板付轡는 유기질제 경판이 立聞 기능을 겸하는 Ω형 내지는 U자형의 금구에 의해 銜 외환에 붙어 있는 것이다. 固定式環狀鏡板付轡는 銜 先端을 크게 만들어 경판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f자형 棒狀鏡板付轡는 철봉을 f자형으로 구부려 중앙에 鉸具형의 입문을 단접한 경판을 가진 것이다.

1/ 岡山縣 隨庵고분 출토 예에서 보이는 板狀의 金具에 대해서 立聞의 기능만 한다고 추측하였다. 銜 외환이 크기 때문에 유기질제 鑣를 넣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坂本美夫 1985)

같은 해 大谷猛은 일본 출토 표비 예의 특징을 검토하고 5세기 전반 ~ 7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표비 개요를 명확히 하였다.(大谷猛 1985) 그 중에서 鑣를 骨(角)製와 금속제로 분류·정리하고 일본의 표비는 한국의 표비 변화에 대응하여 推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骨製의 경우, 한국과 일본 양 지역에서 銜과 引手, 立聞의 형태가 다른 것은 시기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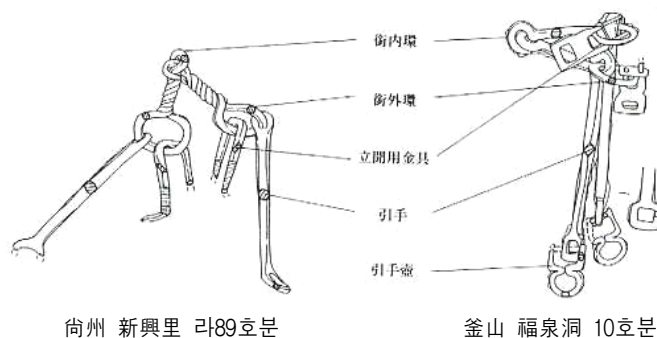
坂本과 大谷의 연구는 鑣의 재질과 연결에 주목하였지만 최근 桃崎祐輔는 표비를 전반적인 구조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① 銜만 있고 引手が 없는 것(無引手), ② 銜 외환에 인수를 직접 장착한 것, ③ 銜 외환과 인수 사이에 遊環을 사용한 것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었다.(桃崎祐輔 1999)

또한 諫早直人は 다양한 종류의 재질을 검토하기 위해 銜의 제작기술, 인수와 銜留의 형태, 遊環의 有無라는 속성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는 백제, 신라, 가야, 고구려 등 複數의 나라가 할거하고 있었지만 재질의 제작기술은 그것들의 범위를 넘어 전체적으로 특정의 획기를 공유하면서 변천한다고 하였다.(諫早直人 2005)





유기질제 鑣를 고정하기 위한 금구(立聞用金具)를 분류한 것은 千賀久이다. 그는 伊藤이 처음 지적한 ㄩ형 혹은 U자형의 것을 a式, 상반부가 板狀이고 거기에 방형의 구멍을 가진 것을 b式이라고 하였다. b式은 뒤이어 출현하는 鏡板付轡의 立聞과 연결되는 금구로서 a式보다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였다.(千賀久 1991) 이 연구는 표비에 대해 처음으로 연대적 서열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비에 대한 연구는 이상과 같이 축적되어 왔으나 대개는 구조에 주안을 두거나 부품 세부 형태를 검토하는 등 그 작업 수준은 다양하다. 표비 전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행한 본격적인 형식학적·기술학적 고찰은 최근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출토 유기질제 표비를 대상으로(도 1) 필자가 이미 행한



도 1. 표비의 부분명칭

板 狀		棒 狀	
鉸留式	掛留式	掛留式	鉸貝式
			

도 2. 立聞用金具의 분류

立聞用金具의 분류·편년의 성과를 바탕으로(도 2), 銜의 형태 및 銜과 인수의 조합에 대해 검토하여 한국·일본 양 지역 표비의 전개과정과 지역간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鑣轡의 引手 및 銜의 분류

銜은 말 입에 물려지는 부분이고 引手는 그 양쪽에 붙어 騎者의 의지를 말에 전달하는 부품이다. 이 가운데 銜에 대해 諫早는 철봉의 꼬임에 의해 나타나는 凹凸를 단위로 생각하고 그 범위에 따라 철봉의 條線을 구분하였다.(諫早 直人 2005) 여기에서는 크게 銜 본체가 되는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捩銜)과 직선으로 된 것(直銜)으로 나눈 다음 인수의 有無와 형태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① 금속제 인수가 남아 있지 않는 것, ② 인수자체가 1조의 철봉을 이루는 것(單條引手)<sup>2)</sup>, ③ 하나의 철봉을 구부려 본체를 만들어 2조 이상을 이루는 것(複條引手)으로 하였다.

또한 立聞用金具에 관해서는 板狀鉸留式, 板狀掛留式, 棒狀掛留式, 棒狀鉸貝式의 4형식으로 나누어진 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도 2, 도 3)

먼저 분류된 인수와 銜의 모든 형식을 조합시키면 다음과 같다.<sup>4)</sup>(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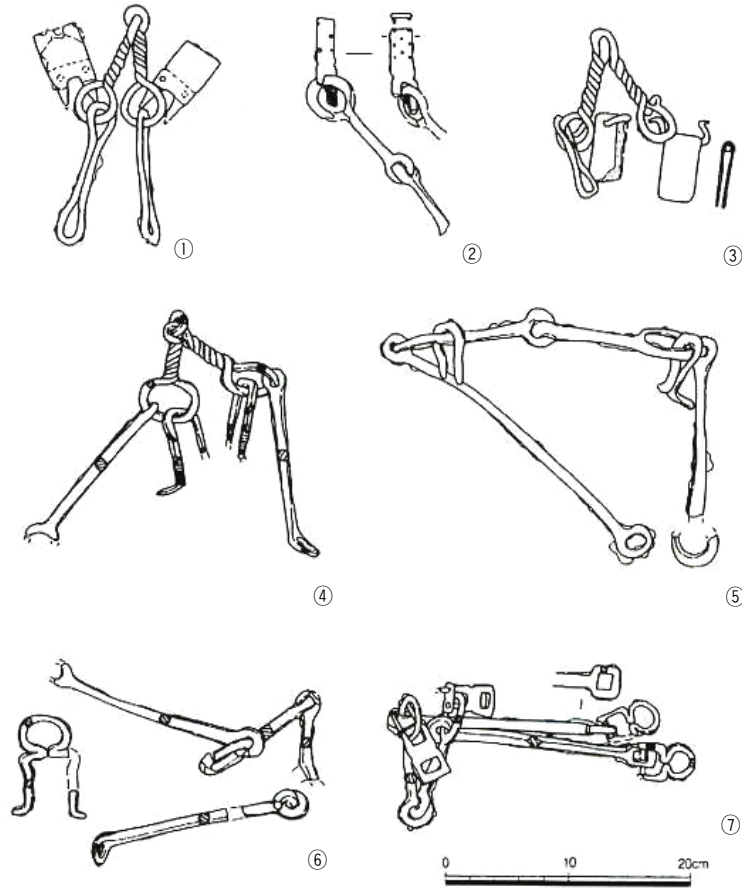
### A 複條引手 + 直銜

일본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봉명동 C-31호분, 의성 탑리 제5묘곽의 출토 예가 있다.

<sup>2)</sup> 가는 철사를 말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sup>3)</sup> 2條이상의 철봉을 꼬아서 1條로 만든 것도 포함한다.

<sup>4)</sup> 여기서는 표비 중에서도 立聞用金具가 남아 있는 예를 중심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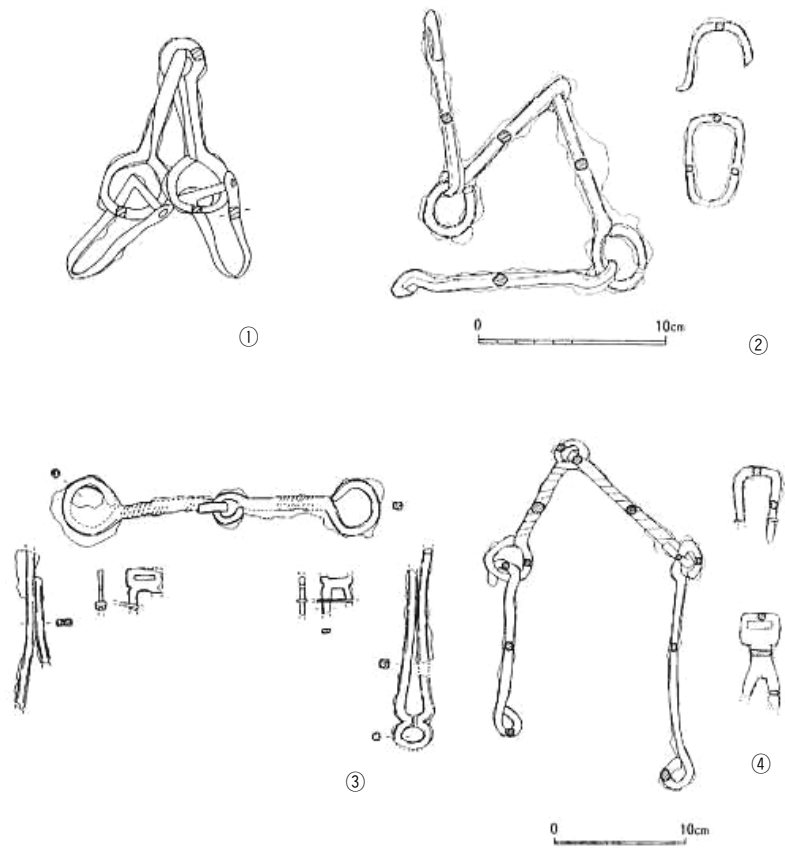
도 3. 입문용금구의 종류

- ①·② 板狀鉸留式 (부산 복천동 69호분·청주 신봉동 80호분)
- ③ 棒狀掛留式 a類 (부산 복천동 71호분)
- ④·⑤ 棒狀掛留式 b類 (상주 신흥리 라89호분·同 가28호분)
- ⑥ 棒狀掛留式 c類 (상주 신흥리 라28호분)
- ⑦ 板狀掛留式 (부산 복천동 10호분)

### B 複條引手 + 振銜

일본에서는 福岡縣 築後市 瑞王寺고분, 奈良縣 橿原市 南山 4호분, 長野縣 飯田市 物見塚고분<sup>5)</sup> 등 3예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김해·합천·상주·청주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sup>5)</sup> 육안으로 실견하였을 때는 直銜으로 추정하였으나 京都大學 諫早直人씨의 振銜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도 4. 함과 인수의 조합유형

- ① 複條引手 + 直銜(청주 봉명동 c-31호분) ② 單條引手+ 直銜(岡山縣 長畝山北 3호분)  
 ③ 複條引手+ 換銜(福岡縣 瑞王寺古墳) ④ 單條引手+ 換銜(岡山縣 一貫西 3호분)

#### C 單條引手 + 直銜

일본에서는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宮崎縣 えびの市 久見迫 B-SK110 토광, 岡山縣 總社市 隨庵고분, 岡山縣 津山市 長畝山北 3호분, 長野縣 飯田市 高岡 4호분 등 5예가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토 예가 많으며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한국·일본 양 지역에서 보편적인 조합인 것을 알 수 있다.

#### D 單條引手 + 換銜

일본에서는 岡山縣 津山市 一貫西 3호분, 兵庫縣 姫路市 宮山高분 第2主體·同 第3主體, 兵庫縣 加古川市 池尻 2호분, 奈良縣 宇陀市 後出

3호분, 長野縣 長野市 上池の平 5호분, 群馬縣 甘樂町 西大山 1호분, 靜岡縣 藤枝市 西宮 1호분 등 8예가 확인되었다. 單條引手 + 直銜 조합과 마찬가지로 한국·일본 양 지역에서 보편적인 조합이다.

한편, 인수가 없는 것(無引手)에는 換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sup>6)</sup>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 6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行者塚고분(3호 재갈) 등이 그 예이다.

### III. 조합의 변천과 지역성

#### 1. 조합의 변천

상기의 4가지 조합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표 1)  
시기구분은 須惠器 형식 TK73 단계보다 이전을 제I기, 그 이후를 제II기로 한다.<sup>7)</sup> 그 가운데 TK23 단계이후를 제III기로 한다. 여기서 제I기는 4세기대, 제II기

<sup>6)</sup> 引手が 없는 것이란 금속제 인수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sup>7)</sup> 형태변화가 명확한 철촉을 보면, 大阪府 藤井寺市 野中高분의 예는 近畿지방에서 長頸式 철촉의 성립단계에 해당되고 동반되는 토기의 형태 등에서 수에기 형식 TK73~TK216단계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鞍塚고분 단계에는 短頸의 철촉이 경부의 伸長化로 5cm이상의 경부를 가진 장경촉의 중간형태로 불리는 것이 나타나고(鈴木一有 2003) 수에기 편년 TK73 형식기에 해당된다. 또한 田中晉作의 철촉분류에 의하면 鞍塚고분은 유엽형 철촉을 중심으로 無頸·有頸式 철촉이 대형화하며 그것은 七觀고분과 같은 단계이다.(田中晉作 1991, 2003)

또한 갑주 형태에서 鞍塚고분, 七觀고분, 野中高분과 함께 新開 1호분이 같은 단계인 제II기에 속한다. 阪口英毅의 분류에 의하면 鞍塚고분 출토 鈍角系三角板革綴短甲 III식의 前胴長側1段地板에 보이는 기술은 長方板革綴短甲 III식의 前胴長側1段에 보이는 기술과 같은 단계의 것이다. 長方板革綴短甲 III식은 七觀고분과 新開 1호분에서 출토되었다.(阪口英毅 1998)

한편, 장경촉이 출토된 부산 복천동 10호분은 일본의 野中高분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踏受有鉞 木心輪鏝의 출현(新開1호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제II단계의 시작이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경촉 성립이 일본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다. 水野敏典은 野中高분 출토 철촉에서 身部가 別造의 片腸挾을 가진 장경촉이 新形式으로 등장한다고 하였다. 철촉 身部가 ナテ關에서 角關 혹은 작게 逆刺가 붙은 형태로 되면서 別造의 片腸挾이 알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확인되며 철촉 身部에 작은 腸挾, 角關을 가진 것이 합천 옥전 28호분, 청주 신봉동 9호분 등에서 출토된다. 別造의 片腸挾이 알아진 유례는 합천 옥전 M3호분에서 확인된다.(水野敏典 2003) 여기서 언급된 옥전 28호분과 복천동 10호분의 선후관계는 白井克也의 토기편년을 보면, 전자는 고령 IB기로 430년 이후, 후자는 신라 I B기로 430년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다.(白井克也 2003) 실연대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표 1> 引手와 銜의 조합 변천

	引手	銜	韓半島	日本列島
第Ⅰ期	無	直銜		
		振銜	金海 大成洞 39호분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 6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行者塚古墳
	複條	直銜	清州 鳳鳴洞 C-31호분	
		振銜	釜山 福泉洞 69호분·同71호분 金海 大成洞 11호분, 陝川 玉田 42호분 清州 新鳳洞 91호분 尙州 新興里 나9호분	
		單條	釜山 福泉洞 21호분	
第Ⅱ期	複條	直銜		
		振銜		奈良縣 橿原市 南山 4호분 福岡縣 筑後市 瑞王寺古墳 長野縣 飯田市 物見塚古墳
	單條	直銜	釜山 福泉洞 10호분, 昌寧 校洞 3호분 慶州 舍羅里 31호분, 同 33호분 大邱 飛山洞 37-1호분 慶州 林堂 E16호분, 陝川 玉田 8호분 清州 新鳳洞 66호분, 同 71호분, 同 74호분, 同 80호분 尙州 新興里 가28호분, 同 가29호분, 同 가30호분, 同 다7호분	長野縣 飯田市 高岡 4호분
		振銜	慶州 皇吾里 14호분 大邱 飛山洞 37-2호분 清州 新鳳洞 8호분, 同 72호분, 同 97-1호분, 同 A地區 4호분 尙州 新興里 라89호분	兵庫縣 姫路市 宮山古墳 第2主体·同 第3主体 静岡縣 藤枝市 西宮 1호분

로 복천동 10호분이 이른 단계에 속한다. 따라서 복천동 10호분은 野中고분보다 빠르고 新開 1호분과 같은 TK73 형식기로 생각된다. 이것에 바탕을 두면 우리나라 장경축 출현이 더 빠르다는 것이 검증된다고 할 수 있다.

등자에서 有鉞踏受의 木心輪鑿이 아직 확인되지 않는 단계, 즉 TK73 형식기보다 이전을 제Ⅰ기, 그 이후를 제Ⅱ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Ⅱ기 有鉞踏受의 木心輪鑿에는 輪部의 폭이 같은 것과 輪部의 폭이 넓은 것이 공존하는데 답수부의 기술적 변천에서 전자를 古式, 후자를 新式으로 나눌 수 있다. 古式에는 합천 옥전 8호분, 부산 복천동 10호분의 예, 新式에는 합천 옥전 20호분·M1호분의 예가 있다.(張允禎 2001)

또한 필자의 등자형식 중 a-④형식, f자형 鏡板付轡 등이 보이는 단계를 제Ⅲ기로 한다. 유사한 유례는 합천 옥전 M3호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長持山古墳에서는 新相으로 보이는 鉞留甲冑, 갈갑과 함께 f자형 鏡板付轡, 내만타원형 鏡板付轡, 검릉형행엽 등의 마구가 동반되고 있다. 옥전 M3호분에서도 f자형 鏡板付轡, 검릉형행엽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 長持山고분과 같이 제Ⅲ기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싶다. 따라서 長持山고분 이후, 즉 수에기 형식 TK208단계(혹은 TK23단계) 이후~TK47 형식기까지를 제Ⅲ기로 한다. 다만 수에기 형식의 단계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준 경계로서 長持山古墳을 이용하고자 한다.

	引手	銜	韓半島	日本列島
第Ⅲ期	複條	直銜	義城 塔里古墳 第5墓槨	
		振銜		
	單條	直銜	清州 新鳳洞 B地區1호분 尙州 新興里 라20号墳, 同 라28호분, 同 라111호분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地下式橫穴墓 宮崎縣 えびの市 久見迫 B-SK110 토광 岡山縣 津山市 長畝山北 3호분 ・同 總社市 隨庵古墳
		振銜	慶州 月城路 가1호분 大邱 內唐洞 55호분 咸平 新德古墳	岡山縣 津山市 一貫西 3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池尻 2호분 奈良縣 宇陀市 後出 3호분 群馬縣 甘樂町 西大山 1호분 長野縣 長野市 上池の平 5호분

는 5세기 전반~중엽, 제Ⅲ기는 5세기 후반이후로 추정한다.

#### 제 I 기

제 I 기에는 인수, 銜이 조합된 예가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되고 일본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複條引手+振銜 조합은 부산·김해·합천·상주·청주지역 등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小數지만 複條引手+直銜 조합이 청주지역에서 보인다. 銜의 형태에 관계없이 複條引手が 존재하는 것은 청주지역이다. 또한 청주지역은 인수의 형태, 즉 單條引手에도 振銜이 조합된 예가 있어 複條·單條 인수 모두에 振銜이 동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지역 역시 複條·單條의 인수가 나타나지만 複條引手에는 振銜, 單條引手에는 直銜이라는 조합이 보여 두 지역에 차이가 확인된다.

한편, 이 시기 일본에서는 銜만 있고 인수는 없는 예가 近畿지방과 북부구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일본은 아직 銜과 금속제 인수라는 조합이 확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우리나라에서 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없는 예는 김해지역에서 보인다.<sup>9)</sup>

<sup>8)</sup> 유기질제 인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sup>9)</sup> 김해지역에서 출토된 재갈(경관이 있는 것)에는 複條引手+振銜, 單條引手+振銜 등의 조합이 확인되고 있다. 桃崎는 봉명동 A-35호 출토품도 금속제 인수가 없는 표비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김해 양동리 78호분 출토 예는 제 I 기에 속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단계에 銜만 있는 것은 대부분 2條이상의 철봉을 꼬아서 만든 것이다.

## 제 II기

제 II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複條引手が 모습을 감추고 單條引수가 주류를 이룬다.<sup>10)</sup> 直銜과 振銜 모두 확인된다.

振銜과 直銜의 분포는 前段階에 振銜·直銜 모두 존재하던 부산지역과 振銜이 주류를 이루던 합천지역에서는 直銜만 출토된 것에 대해 상주·청주 지역에서는 振銜·直銜 모두 동반되고 있다.

이 시기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單條引수가 주류를 이루고 振銜·直銜 모두 공존하지만 前者가 수적으로 많다. 그리고 인수 형태에 관계없이 振銜이 압도적으로 많다.

## 제 III기

제 III기의 우리나라는 前段階에 이어 單條引수가 주류를 이루며 振銜·直銜이 조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前段階의 複條引수가 없어지고 單條引수가 주류를 이룬다. 直銜·振銜 모두 존재하고 있다.

## 2. 조합의 지역성

銜과 인수의 형태 및 그 조합에 주목하여 한국·일본 양 지역 표비의 시기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立聞用金具 형식과 遊環의 有無에 주목하여 일본 출토 예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고 한국·일본 양 지역간 마구 기술의 교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 제 I기

제 I기는 상술한 것과 같이 일본에서는 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동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도 5) 銜만 확인되는 것은 福岡縣 朝倉市 池の上 6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行者塚古墳의 예가 있고<sup>11)</sup> 모두 振銜이다. 振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은 예는 김해 대성동 39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이것은 형태상으로 行者塚고분 출토 예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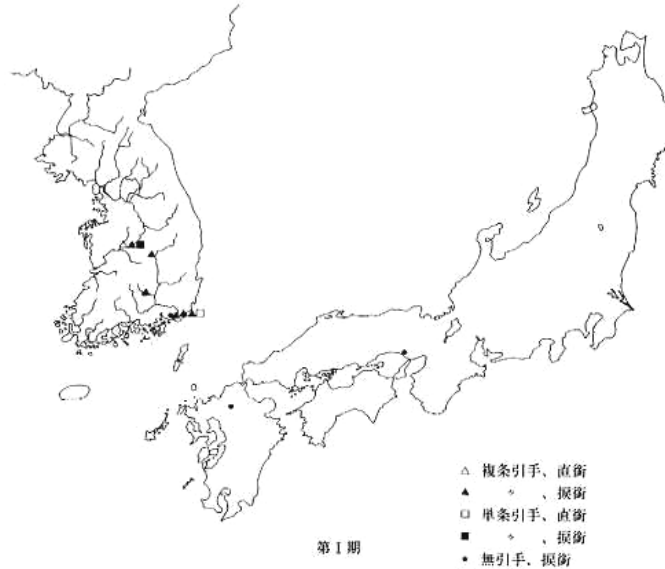
池の上 6호분 출토 예는 棒狀掛留式의 입문용금구를 사용하고 있다.<sup>12)</sup>

<sup>10)</sup> 여기서는 표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형식의 재갈에는 複條引수가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環狀形鏡板付轡가 그것이다.

<sup>11)</sup> 行者塚고분에서는 이 표비 외에 경관을 가진 재갈 2개가 있고 모두 振銜에 해당된다.

<sup>12)</sup> 中山은 立聞 기능을 하고 鑣에 직접 연결하는 Ω형의 脚部가 銜 외환의 크기에서 녹각 등의



도 5. 銜·引手·立間用金具의 조합양상(1)

振銜에 棒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조합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시기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가 출토되는 곳은 부산·김해·경주·합천·상주·청주지역 등으로 분포가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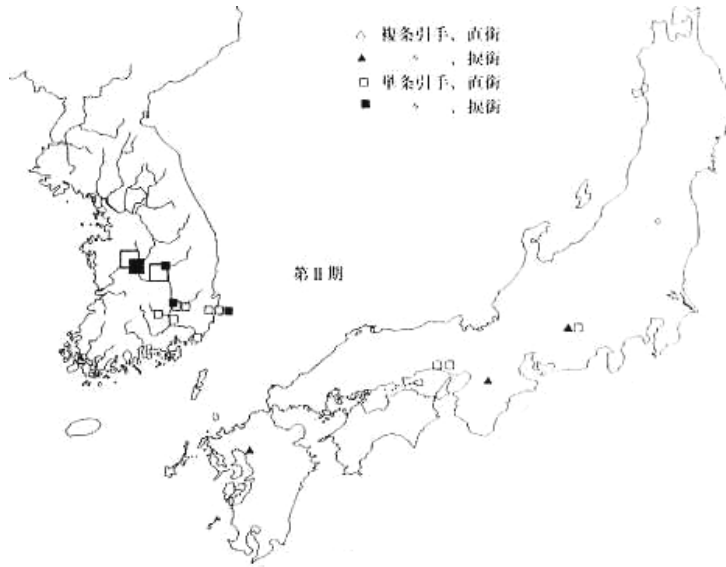
출토 예는 적지만 일본의 池の上 6호분·行者塚고분 모두 振銜만 있고 금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은 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김해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어 두 지역간의 교류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제II기

제II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표비의 유례 중 複條引手는 없지만 다른 종류의 재갈에서 複條引手が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 複條引手는 福岡縣 築後市 瑞王寺고분, 奈良縣 橿原市 南山 4호분, 長野縣 飯田市 物見塚고분 등에서 알려져 있다. 모두 振銜과 조합을 이룬다.(도 6)

---

鑣를 쫓는 것이 어려워 고리 바깥쪽에 鑣를 대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中山清隆 2001) 中山의 생각과 같이 복원하면, 면계가 통과할 폭이 필요할 것이며 그 상태에서 O형 금구는 立間用金具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 외환의 폭을 모두 사용해서 鑣를 쫓아 넣고 立間用金具에는 면계 혹은 가죽 종류의 인수를 연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 6. 銜·引手·立聞用金具의 조합양상(2) (□■의 큰 것은 작은 것의 3개를 표현)

제II기에 複條引手를 가진 유례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南山 4호분 출토 예는 前段階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複條引手와 비교하고자 한다. 前段階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유례는 삼자루형을 띠고 있는 것에 비해 南山 4호분과 物見塚고분 출토 예는 하나의 철봉을 구부려 인수의 양쪽 끝을 등글게 만들었다. 이것과 형태가 유사한 것이 부산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sup>13)</sup> 한편, 우리나라의 複條引手는 棒狀掛留式을 주로 사용하였고 부산·김해·합천·청주·상주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南山 4호분 출토 예의 立聞用金具는 脚部 중간에 철제 횡축을 가진 棒狀掛留式로서 청주 신봉동 60호분 출토 예와 유사하다. 전체적으로 청주 신봉동 60호분의 재갈이 單條引手+直銜이라는 조합과 遊環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 複條引手+振銜의 조합에 無遊環의 南山 4호분 출토 예와는 차이를 보인다.

<sup>13)</sup> 같은 형태의 인수는 부산 북천동 69호분·71호분에서 출토되었다. 桃崎는 4세기 중엽~후반 대의 북천동 69호분·71호분의 예와 매우 흡사하며 南山 4호분에 공반하는 도질토기 고배·마형각배대·鐵鑊 등은 마산 주변에서 박제된 5세기 전엽의 제품으로 생각하였다.(桃崎祐輔 2004)

그러나 南山 4호분 출토 예와 북천동 69호분·71호분의 예는 立聞用金具에 차이가 있다. 필자의 立聞用金具 형식분류 및 변천에 의하면 북천동 69호분·71호분의 예가 南山 4호분의 예보다 이른 시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瑞王寺고분 출토 예의 인수는 철봉을 구부려 끝부분에 둥근 고리를 만든 후 다시 장방향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複條引手에 해당된다. 면계의 가죽끈이 둥근 고리에 걸쳐지는 구조로 추정된다. 유사한 형태는 부산 북천동 10호분, 합천 옥전 67-B호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재질의 종류는 표비가 아니다. 북천동 10호분 출토품은 環狀形 경관과 振銜, 別造의 引手壺를 동반하고 있으며 옥전 67-B호분 예도 환상형 경관에 振銜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4)</sup> 한편, 瑞王寺고분 출토 예의 입문용금구는 板狀掛留式이고 이러한 立聞用金具는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표비에서 확인되고 있다.

單條引手+振銜 조합은 兵庫縣 姫路市 宮山高분 第2主體·同 第3主體, 靜岡縣 藤枝市 西宮 1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이 조합은 사용된 입문용금구와 遊環의 有無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를 가진 것은 宮山高분 第3主體<sup>15)</sup>, 西宮 1호분 등의 예이다. 유사한 조합은 대구 비산동 37-2호분, 상주 신흥리 라89호분, 청주 신봉동 8호분·同 72호분 등 대구·상주·청주지역에서 알려져 있다.

일본의 西宮 1호분 출토 예는 유기질제 鑣를 입문용금구로 고정하였으며 鑣의 일부에 얇은 철판이 씌워져 있다.<sup>16)</sup> 單條引手+振銜 조합에서 鑣의 일부를 철판으로 씌운 예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棒狀掛留式가 동반되는 대구·상주·청주지역 중 청주지역 유례는 遊環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西宮 1호분을 비롯한 상기의 출토품에서는 遊環이라는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유례는 遊環이 없는 대구·상주지역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板狀掛留式을 사용하는 것은 宮山高분 第2主體 출토 예가 있다. 이러한 유례는 청주 신봉동 97-1호분에서 보인다. 청주지역은 單條引手+直銜 조합이 많은 것에 비해 상기와 같은 單條引手+振銜이라는 조합은 드물다.

그리고 宮山高분 第2主體 출토 예는 立聞用金具의 板狀部와 脚部사이에 얇은 철판을 만들어 鑣부분을 보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질제 鑣와 銜 외환이 만나 입문용금구로 고정하는 부분에 얇은 철판을 씌운 예는 합천 옥전 8호분<sup>17)</sup>, 원주 법천리 1호분<sup>18)</sup> 등이 알려져 있다.<sup>19)</sup> 또한 板狀部와 脚部 사이에

14) 보고서에서는 폭 0.3cm 전후의 철사로 말았다고 표현되어 있으나 철봉 하나를 비틀은 것으로 추정된다.

15) 실견하였을 때 立聞用金具의 형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千賀久의 a식에 속하므로(千賀久 1988) 필자의 棒狀掛留式으로 판단하였다.

16) 鈴木에 의하면, 긴 單條引手와 길쭉한 형태의 인수 외환, 가늘고 긴 立聞用金具 등에서 고분시대 중기중엽 신단계(4기)에 사례로서 생각하고 있다.(鈴木一有 2004)

17) 보고서의 도면복원에서 없어진 鑣에 철판이 씌워진 듯이 표현하고 있다.(경상대학교 1988)

철제 횡축을 가진 것은 부산 복천동 10호분, 청주 신봉동 74호분 등 부산·청주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宮山高분 第2主體 출토 예의 立聞用金具에는 鈎金具가 있으며<sup>20)</sup> 遊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가 중복되는 유례는 합천 옥전 8호분, 청주 신봉동 B지구 1호분 등으로 합천·청주지역에서 보인다. 宮山高분 第2主體 출토 예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특징적인 요소는 청주지역 출토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21)</sup>

마지막으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유례가 적어 長野縣 飯田市 高岡 4호분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것은 棒狀掛留式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구 비산동 37-1호분, 경산 입당 E16호분, 상주 신흥리 가28호분·가29호분·가30호분·가7호분, 청주 신봉동 3호분 등 대구·경산·상주·청주지역에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상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III기

제III기가 되면 한국·일본 모두 單條引手が 주류를 이루며 直銜과 振銜 모두 공존하고 있다.(도7) 먼저 單條引手+振銜 조합에는 岡山縣 津山市 一貫 西 3호분, 兵庫縣 加古川市 池尻 2호분, 奈良縣 宇陀市 後出 3호분, 長野縣 長野市 上池の平 5호분, 群馬縣 甘樂町 西大山 1호분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棒狀掛留式을 사용하는 것은 後出 3호분, 上池の平 5호분 출토 예 등이다. 이 단계의 한국에서는 동일한 조합을 가진 예는 발견되지 않았다. 單條引手+振銜이라는 조합은 경주 월성로 가1호분, 대구 내당동 55호분 출토 예에서 보이지만, 前者는 3연식의 銜, 後者는 棒狀鉸具式이라는 입문용금구로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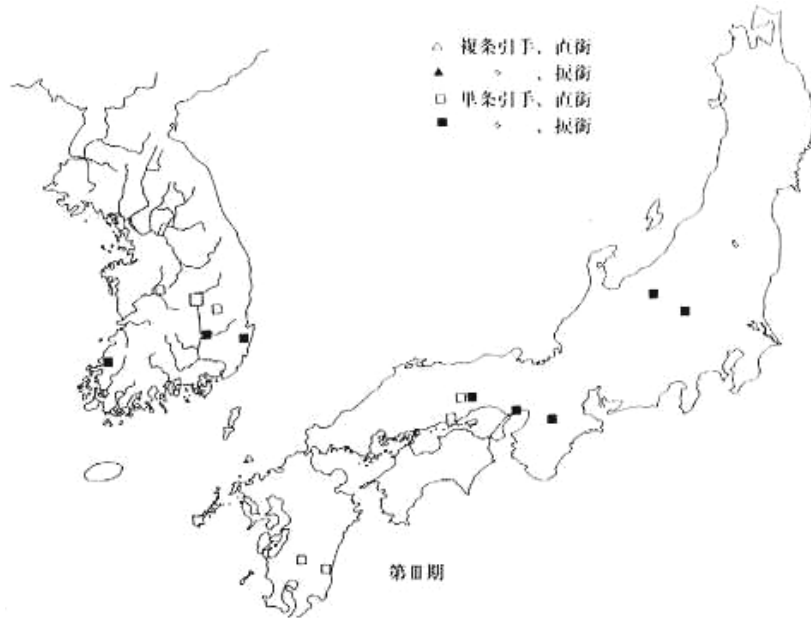
單條引手+振銜 조합에 板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예로서 池尻 2호분, 西大山 1호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西大山 1호분 출토 예는 木製 鑣를 銜 외환에 입문용금구로 고정하는 부분에 얇은 철판을 씌워져 있다. 이 단계 우

18) 보고서에서는 鑣의 존재와 鑣를 씌운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실측도와 사진으로 판단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0)

19) 제 I 기로 추정되는 김해 대성동 2호분 출토품 중에서 鑣와 입문용금구가 一體화된 것으로 鑣와 銜 외환이 접하는 일부를 두께 0.2cm의 얇은 철판으로 감싸고 있다.(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20) 청원 주성리 1호 석실묘 4차 관대에서 출토되었으나 銜과 인수의 상태는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21) 청주지역 출토품 가운데 시기적으로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도 있다.



도 7. 銜·引手·立聞用金具의 조합양상(3)

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함평 신덕고분 출토 예는 3연식의 振銜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板狀掛留式을 사용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매우 드문 예이지만 一貫西 3호분 출토품은 銜 외환 양쪽에 각각 다른 형식의 立聞用金具가 조합되어 있다. 즉, 棒狀掛留式과 板狀掛留式이라는 각기 다른 형태의 입문용금구가 하나의 재갈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다. 棒狀 脚部에는 骨製, 板狀 脚部에는 木製의 유기질이 각각 남아 있어 본래는 다른 개체로 사용되다가 2차적으로 부품을 모아 재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출토품은 양쪽 인수의 길이도 달라 2차 재구성의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22)</sup>

한편 일본에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제Ⅱ기까지 그 수는 적으나 제Ⅲ기가 되면 주류를 이루고 있다. 棒狀掛留式이 많이 사용되며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宮崎縣 えびの市 久見迫B-SK110 토광, 岡山縣 津山市 長畝山北 3호분 등에서 출토되었다.

宮崎縣 宮崎市 下北方 5호 지하식 횡혈묘 출토 예는 실측도에서 遊環이

<sup>22)</sup> 이러한 예는 상주 신흥리 라108호분이 있고 單條引手+直銜의 조합을 이룬다.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實見한 결과, 銜 외환이 遊環으로 잘못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鑣를 고정하는 입문용금구의 형태는 불명확하지만 ㄱ형으로 철봉 중앙에 굴곡을 2중으로 해서 안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고리에 면계의 가죽끈을 걸치는 필자의 棒狀掛留式 c류로 추정된다. 이러한 立聞用金具는 경주 월성로 가1호분, 상주 신흥리 라20호분·라28호분 등 경주와 상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久見迫 B-SK110 토광 출토 예는 遊環이 있으며 立聞用金具 脚部에 직경 2cm정도의 骨製가 남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주 신봉동 3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청주지역은 遊環을 가진 출토 예가 많지만 單條引手+直銜 조합에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長畝山北 3호분 출토품의 立聞用金具는 넓은 범위에서 棒狀掛留式에 속하지만 銜 외환 양쪽에 사용된 것 중 하나는 ㄱ형이고 다른 하나는 사다리꼴에 가까운 사각형이다. 이렇게 형태가 다른 立聞用金具를 세트로 가진 예는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유례는 앞에서 서술한 一貫西 3호분 출토 예와 같이 부품을 2차적으로 모아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출토지 역시 一貫西 3호분과 같은 岡山縣 津山분지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單條引手+直銜 조합에 板狀掛留式을 동반하는 예는 현재까지 岡山縣 總社市 隨庵고분 한 예가 알려져 있다. 이것은 銜에 遊環을 사용하여 인수와 조합하고 있다. 인수의 끝은 결실되었으나 環狀部의 剖面이 1개 있어 추정할 수 있다. 銜 외환에는 면계의 가죽끈을 통과시켰던 것으로 생각되는 작은 철판(立聞用金具)이 남아 있다. 그것의 전체적인 형태는 결실되어 파악하기 어려우나, 板狀의 철판에 장방형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유례는 경주 사라리 31호분, 합천 옥전 8호분, 청주 신봉동 66호분·71호분·74호분 등 경주·합천·청주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청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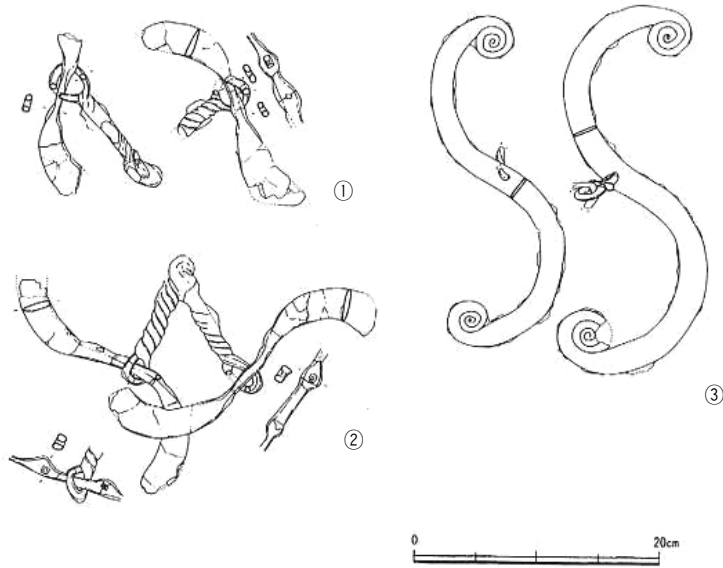
#### IV. 鑣로 본 지역간 교류관계

한국·일본 양 지역의 표비 전개과정을 銜과 인수의 형태 및 立聞用金具와 遊環 등의 조합 상태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지역성을 가미하여 한국·일본 양 지역의 표비가 어떠한 지역적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I 기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일본 양 지역 모두 인수의 有無에 관계없이 振銜의 출토 예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는 振銜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複條引手에 棒狀掛留式 입문용금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출토 예는 적지만 금속제 인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 알려져 있다. 입문용금구도 棒狀掛留式만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福岡縣과 兵庫縣에서 출토되었다. 이 단계 우리나라에서 금속제 인수를 동반하지 않는 표비는 김해지역에 유례가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유기질제 鑢를 가진 재갈은 금속제 인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속제 鑢轡에는 금속제 인수가 조합되지 않는 것이 많다.<sup>23)</sup> 특히 우리나라의 금속제 鑢轡는 금속제 인수를 가지지 않고 振銜과 조합된 것이 많다. 이 금속제 鑢轡는 立聞用金具가 존재하는 표비보다 이른 단계인 三韓時代부터 유례가 확인되고 있다.(도 8)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제 I 기의 한국·일본 양 지역에서는 삼한시대의 振銜 전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8. 우리나라 三韓時代 鑢轡의 유례

- ① 경산 임당 A-1-96호분
- ② 경산 임당 A-1-145호분
- ③ 울산 하대 1호분

<sup>23)</sup> 우리나라의 三韓時代に 해당하는 금속제 鑢轡는 금속제 인수의 존재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에서 제 I 기에 해당되는 유례는 금속제 인수가 존재하지 않고 振銜이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나라 출토 금속제 표비(삼한시대)가 가진 이른 시기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두 요소는 특히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속제 표비가 성행했던 지역과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立聞用金具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立聞을 통과한 가죽끈이 못으로 고정되는 형식(鉸留式)이 立聞을 통과하여 걸치는 형식(掛留式)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에서는 鉸留式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제 II 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청주·상주·낙동강 以東지역을 중심으로 鑣轡의 출토 수가 급증하며 單條引手が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立聞用金具의 형식에 관계없이 振銜은 청주지역, 直銜은 낙동강 以東지역에서 출토 예가 약간 많아진다. 더욱이 立聞用金具의 검토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청주지역에서는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지만 상주지역에서는 오로지 棒狀掛留式만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을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우선 前段階 우리나라 전체에 보인 複條引手が 近畿지방과 福岡縣·長野縣 등에서 출토되어 일본 전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振銜을 동반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三韓時代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近畿지방과 福岡縣은 前段階의 振銜이 계속 사용되고 長野縣에는 振銜이 새롭게 등장한다.

또한 유례는 적지만 單條引手が 近畿지방·靜岡縣에서는 振銜과의 조합이 많고 長野縣에서는 直銜이 분포하고 있다. 近畿지방·靜岡縣에서 확인된 單條引手+振銜 조합은 대구·상주·청주지역에서 보이고 특히 청주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청주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遊環이라는 요소가 없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宮山高분 제2主體 출토품은 遊環을 동반되고 있어 청주지역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다.

長野縣에서 출토된 單條引手+直銜 조합은 상주 및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타입으로 양 지역의 교류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 단계의 일본 鑣轡, 특히 銜의 형태에 주목하면 振銜의 近畿지방과 福岡縣·靜岡縣은 청주지역, 振銜과 直銜 모두 공존하는 長野縣은 대구·상주·청주지역과의 교류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長野縣의 直銜은 상주 및 낙동강 以東과의 교류관계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銜과 인수의 조합에서 본 한국·일본의 교류관계는 다른 유물, 예를 들면 垂飾付耳飾에서도 찾을 수 있다.(高田寬太 1998) 垂飾付耳飾은 일본 내에서 도래인이 주체가 되어 제작·유통에 관여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일

본에 가져 온 것으로 近畿와 북부구주지역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유통경로는 일본 각 지역 수장들이 우리나라와의 정치적·경제적 연결을 과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정치권력, 大和정권과의 교섭을 통해 입수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大和정권을 중심으로 한 畿內지역을 제외한 북부구주지역, 若狹灣 연안지역 등 한국과 밀접한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자료로 검증할 수 있다.

상기의 한국·일본의 교류관계는 일본 내의 표비 제작시기와 체제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 표비 중 振銜이 많은 近畿지방에서 立聞用金具 중 板狀掛留式이 2개뿐인 점에서나 인수와 立聞用金具의 조합이 다양한 것에서, 만약 일본 국내에서 제작하였다면 부품 종류와 조합 등에 좀더 규칙성을 보여도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Ⅲ기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振銜이 낙동강 以東지역과 영산강유역에 보이고 直銜은 상주·청주지역에서 확인된다. 일본의 출토 예는 적지만 분포양상이 前段階와 다르다. 近畿지방과 岡山縣·長野縣·群馬縣 등에서는 振銜이라는 오랜 전통을 가진 유기질제 표비에 남아있다. 그리고 岡山縣과 宮崎縣에서는 直銜이 확인되며 상주 및 청주지역에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에 동반되는 입문용금구도 상주·청주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양 지역간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近畿지방과 岡山縣·長野縣·群馬縣의 것은 낙동강 以東지역과 영산강유역에 보이지만 유례가 적어 관계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宮崎縣에서는 지하식 황철묘라는 독특한 묘제에도 마구가 매납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분포상황과 지역성 검토를 통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제Ⅱ기·제Ⅲ기를 통해 近畿지방은 표비의 분포가 적고 岡山縣·長野縣·群馬縣과 宮崎縣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그 지역에 분포하는 고분의 수에 비해 많은 편이다.

近畿지방의 경우, 제Ⅰ기·제Ⅱ기에는 표비에 한정되지 않고 馬具副葬의 예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래도 大形の 前方後圓墳보다 이른바 陪塚이라고 불리는 圓墳에서 출토되는 것이 많다.<sup>24)</sup> 제Ⅲ기가 되면 전체적인 마구의 부장이 급증하고 墳形에 관계없이 다양한 마구가 확인된다. 그리고 전방후원분과 藤ノ木고분처럼 대형의 圓墳에서 금동제마구를 비롯한 複數의 세트를 동반하는 것에 비해 작은 圓墳에서는 등자 혹은 재갈 등 하나만 부장되면서도 장식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것은 피장자의 身分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마

24) 大形 전방후원분의 조사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정짓기는 어렵다.

구를 사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sup>25)</sup>

한편, 岡山縣의 경우, 振銜과 直銜이 공존하고 있으며 立聞用金具과 조합도 다양하다. 一貫西 3호분과 같이 양쪽 인수의 길이가 다른 것, 하나의 재갈에 형태가 다른 立聞用金具가 사용되고 있는 것 등에서 부품을 2차적으로 모아 재구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도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내에서 표비의 독자적인 성격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立聞用金具의 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Ⅱ기 유기질제 표비가 왕성하게 사용되던 청주지역과 상주지역은 지리적으로 당시 남하의 압력을 보이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축으로 모든 국가세력들이 서로 대항하였을 곳으로 생각되는 지역이다. 즉, 청주지역은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의 경계에 해당하는 입지로, 상주지역은 신라-고구려, 신라-백제의 주요 루트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군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것을 山城이 많이 존재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표비를 實戰的 마구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진 집단을 기마집단으로 추정하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표비의 출토 수가 적은 점, 長野縣·群馬縣에서는 周溝 내 토광 혹은 고분의 周溝에서 표비가 출토되는 점,<sup>26)</sup> 동반하는 유물 등을 종합하면 馬匹생산에 종사한 도래인과의 관련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의 표비는 출토된 지역의 사회적·정치적인 환경을 반영하기보다는 부장된 묘의 피장자 성격 혹은 직업을 나타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 출토 유기질제 표비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필자가 행한 立聞用金具의 분류·편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銜의 형태 및 銜과 引手의 조합에

<sup>25)</sup> 마구의 형태 및 제작기법에 관계없이 단순히 마구에 대한 취급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인되는 곳은 경주지역이다. 경주지역은 마구가 출토된 고분의 규모와 마구 副葬量에 명확한 관계가 있고 大形고분에서는 實用馬具 외에 장식성이 풍부한 금동제 등의 마구가 발견된다. 이것은 마구부장이 피장자의 신분표시에 이용되는 경향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sup>26)</sup> 桃崎에 의하면 馬骨出土 古墳의 반 정도가 마구를 동반하고 5세기의 예 중에서 群馬縣 西大塚 長野縣 高岡 4호분·物見塚, 宮崎縣 六野原馬壙, 久見迫 B110호 토광 예는 표비를 裝備해서 기마 풍습의 도입과 동시에 순장이 開始된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래 표비의 출토 수가 적었던 것은 주체부에 매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桃崎裕輔 1999)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일본 양 지역 표비의 전개과정과 지역간 교류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 내부의 지역적 특색과 분포상황에는 우리나라 모든 지역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래인 분포 등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식도를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표비라는 재갈의 한 형식만 언급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권력과 관계가 있는 鏡板付轡를 포함한 행엽 등의 형태·재질 및 제작기법 등에 주목하여 시기적인 변화와 지역적 교류관계에 대한 검토를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 투고일 2009년 7월 17일 |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0일 |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28일 ■

## 참고문헌

- 諫早直人, 2005 『朝鮮半島南部三國時代における轡製作技術の展開』『古文化談叢』54, 九州古文化研究會
- 諫早直人, 2006 『付遍 瑞王寺古墳出土馬具再検討』『築後市内遺蹟群IX』築後市文化財調査報告書 제73집
- 高田寛太 1998 『垂飾付耳飾をめぐる地域間交渉』『古文化談叢』41, 九州古文化研究會
- 金基雄, 1987, 『韓國古代의 馬銜考』『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一志社
- 金斗喆, 1991, 『三國時代 轡의 研究』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大谷猛, 1985 『日本出土の『鑣轡』について』『論集日本原史』吉川弘文館
- 桃崎祐輔, 1999, 『日本列島における騎馬文化の受容と擴散-殺馬儀禮と初期馬具の擴散に見る慕容鮮卑・朝鮮三國伽耶の影響-』『渡來文化の受容と展開-5世紀における政治的・社會的變化の具體相(2)-』第46回埋藏文化財研究集會 pp.373-420
- 鈴木一有 2003 『中期古墳における副葬鏃の特質』『帝京大學山梨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 제11집-古墳時代中期の諸様相-』帝京大學山梨文化財研究所
- 鈴木一有 2004 『中ノ郷古墳出土遺物の検討』『三河考古』제17집
- 白井克也 2003 『馬具と短甲による日韓交差編年の平行關係と曆年代』『土曜考古』27, 土曜考古學研究會
- 白井克也 2003 『新羅土器の型式・分布變化と年代觀-日韓古墳編年の平行關係と曆年代』『朝鮮古代研究』4, 朝鮮古代研究刊行會
- 水野敏典, 2003 『古墳時代中期における日韓鐵鏃の一樣相』『帝京大學山梨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 제11집-古墳時代中期の諸様相-』帝京大學山梨文化財研究所
- 李蘭暎・金斗喆, 1999, 『韓國의 馬具』韓國馬事會・馬史博物館
- 伊藤秋男, 1974 『韓國における三國時代の鑣轡について』『韓』제25호
- 李尙律, 1996, 『三國時代의 鑣轡에 대하여-嶺南地方 出土品の 系統을 中心으로-』『碩晤尹容鎮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李熙濬, 1998,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서울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論文

- 張允禎, 2001, 『韓半島三國時代における鎧の展開と地域色』 『岡山大學  
大學院文化科學研究科 紀要』第12號
- 張允禎, 2003, 『韓半島三國時代の轡の地域色-とくに立聞用金具を中心  
として-』 『考古學研究』50-2, 考古學研究會
- 張允禎, 2004, 『日本列島の鎧にみる地域間關係』 『考古學研究』51-3, 考  
古學研究會
- 張允禎, 2006, 『청주 신봉동고분군 출토 鑣轡에 관한 연구』 『先史와 古代』24,  
한국고대학회
- 趙榮濟, 1997, 『玉田古墳群의 階層分化에 대한 研究』 『嶺南考古學』20
- 中山清隆, 2001, 『馬具の種類と變遷』 『季刊考古學』제76호
- 坂本美夫, 1985, 『馬具』考古學ライブラリー34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阪口英毅, 1998, 『長方板革綴短甲と三角板革綴短甲-變遷とその特質』  
『史林』81-5
- 千賀 久, 1988, 『日本初期馬具の系譜』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九
- 千賀 久, 1994, 『日本初期馬具の系譜2』 『檀原考古學研究所論集』十二

(報告書・圖錄)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6, 『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區間內 安東 造  
塔里 古墳群Ⅱ('94)』
- 慶尙大學校博物館, 1988, 『玉田古墳群Ⅰ-木槨墓-』
- \_\_\_\_\_, 1990, 『玉田古墳群Ⅱ-M3號墳-』
- \_\_\_\_\_, 1992, 『玉田古墳群Ⅲ-M1・M2號墳-』
- \_\_\_\_\_, 1993, 『玉田古墳群Ⅳ-M4, M6, M7號墳-』
- \_\_\_\_\_, 1995, 『玉田古墳群Ⅴ-M10, M11號墳-』
- \_\_\_\_\_, 1997, 『玉田古墳群Ⅵ-23・28號墳-』
- \_\_\_\_\_, 1998, 『玉田古墳群Ⅶ-12・20・24號墳-』
- \_\_\_\_\_, 1999, 『玉田古墳群Ⅷ-5・7・35號墳-』
- \_\_\_\_\_, 2000, 『玉田古墳群Ⅸ-67-A・B, 73~76號墳-』
- \_\_\_\_\_, 2003, 『玉田古墳群Ⅹ-88~102號墳-』
- 慶州文化財研究所, 1993, 『皇南大塚(南墳)發掘調査報告書』
- 慶州市・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慶州市 栗洞 1108番地 古墳群 發  
掘調査 報告書』

國立中央博物館, 1999, 『特別展 百濟』  
 國立博物館, 1964, 『皇吾里4・5號墳, 皇南里破壞古墳發掘調查報告』  
 國立慶州博物館 外, 1990, 『慶州市 月城路古墳群』  
 金載元・尹武炳, 1962, 『義城塔里古墳』, 國立博物館  
 金正基 外, 1974, 『天馬塚』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金鍾徹, 1981, 『高靈池山洞古墳群』啓明大學校博物館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北墳)發掘調查報告書』  
 釜山大學校博物館,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Ⅰ』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東萊福泉洞古墳群Ⅱ』  
 釜山福泉博物館, 2001, 『古代戰士斗 武器』  
 沈奉謹外, 1992, 『昌寧校洞古墳群』東亞大學校 博物館  
 尹容鎮・金鍾徹, 1979, 『大伽倻古墳發掘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1982  
     年調査-』  
 忠北大學校博物館, 1990, 『清州新鳳洞百濟古墳群發掘調查報告書-1990  
     年調査-』  
 忠北大學校博物館, 1995, 『清州新鳳洞古墳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新興里古墳群』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0, 『清原 主城里遺蹟』

加古川市史編纂專門委員編 1996 『加古川』第四卷史料編Ⅰ  
 鎌木義昌・間壁忠彦・間壁葎子 1965 『隋庵古墳』總社市教育委員會  
 京都大學總合博物館 1997 『王者の武裝』京都大學總合博物館 春秋企劃  
     展 圖錄  
 宮崎市教育委員會 1977 『下北方地下式橫穴第5號緊急發掘調查報告書』  
     宮崎市文化財調查報告書 第3集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 1981 『新澤千塚古墳群』奈良縣史蹟名勝天  
     然記念物調查報告 第39冊  
 奈良縣立橿原考古學研究所附屬博物館 2003 『古墳時代の馬との出會  
     い-馬と馬具の考古學』春秋特別展圖錄  
 島田清・上田哲也ほか 1965 『印南野-その考古學研究Ⅰ-加古川工業用  
     水ダム古墳群發掘調查報告』加古川市教育委員會  
 東京國立博物館 1986 『東京國立博物館 圖錄目錄-古墳遺物編(關東Ⅲ)』

末永雅雄編 1991 『盾塚 鞍塚 珠金塚古墳』由良大和古代文化研究會  
 梅原末治 1920 『松尾村穀塚』『京都府史蹟勝地調査會報告』  
 狛江市史編纂委員會 1985 『狛江市史』  
 斑鳩町 1986 『斑鳩藤ノ木古墳』  
 西田弘・鈴木博司・金關恕 1961 『新開古墳』『滋賀縣史蹟調査報告 第  
 二十冊』滋賀縣教育委員會  
 宇治市教育委員會 1991 『宇治二子山古墳發掘調査報告』宇治市文化財  
 調査報告書 第2冊  
 財團法人 岐阜縣文化財保護センター 2002 『後平茶臼古墳・後平古墳』  
 筑後市教育委員會 1984 『瑞玉寺古墳』  
 筑後市教育委員會 2006 『筑後市内遺跡群Ⅸ』  
 樋口隆康・岡崎敬・宮川徒 1961 『和泉國七觀古墳調査報告』『古代學研  
 究』27

Abstract

## A Study on the organic matter bit found from Ancient Korea and Japan

Chang Yoon Chung

This work shed light on the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harness production and influences between Korea Peninsula and Japan, focusing on the comparisons of the shapes of bits and handle-connected sticks in the entire bit and bridle structure. Also this study includes the technicians of bit and bridle in both countries. As a result of this, it is note to remember that metal handle-connected sticks were not identified in the early stage the Kohun period in Japan but snarling shapes had been reported the most. This fact can also be found from Three Han period in Korea Peninsula. Also Kingi Area has rather less examples while Okayama, Nagano, Gunma and Miyazaki areas produced amounts of handle-connected sticks. It is interesting that those areas (from Okayama to Miyazaki) show less numbers of tombs compared to Kingi Area. Therefore it can be presumed that bits and bridles are not reflect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in Japan but rather showing personality or occupation of the deceased.

Key words : Horse trapping, organic matter bit, regional relationships,  
the Three Kingdom period in Korea, the Kohun  
period in Japan